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김 성 희(여주대학 교수, 여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자 증가에 비해 사업비 동결로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6월 사업 조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이용자 가정을 선정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희선 교수님의 원고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의 개선을 위해 개인적인 소견을 정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뒤따른다고 하나,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의 돌봄 노동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위한 면접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아이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기회로 아이돌보미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규칙적인 일거리, 불안정한 소득보장의 문제로 좌절을 경험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조기 사업종료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용자 가정의 선정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아이돌보미들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고 불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오히려 여성 노동력을 저임금의 돌봄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유급 자원 봉사자에 상응하는 대우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젠더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함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조기 정착과 함께 사업 추진체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용자들의 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사업 추진의 혼란스러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이용비용과 대상자 구분, 자녀수에 따른 이용요금 변경, 요구되는 서류양식의 변경들은 이용자, 아이돌보미, 그리고 담당직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져다 주며,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방학을 맞아 전달된 아이돌보미 특별사업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총괄팀에 대한 불실과 반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시행과 함께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시스템의 보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조기정착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야기되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역에 따라 이용형태 및 이용자의 특성이 매우 상이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나형과 다형의 이용이 현저히 많으나, 여주군을 비롯하여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는 가형이 많습니다. 이에 획일적인 사업시행보다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시행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이희선교수님의 원고에서도 초기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교육부재로 인해 아이돌보미들을 가정부로 인식하여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여 위축되거나 안이하게 활동하여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매월 진행되는 보수교육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기능적인 교육이외에 돌보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의식과 태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돌보미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훈련시킨다면 아이돌보미들이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원고에서 2007년 사업이 수행되면서 사업비가 조기 소진하여 사업이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 토론자가 알기로는 2007년의 경우 대구 달서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사업비 부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남시의 경우 연계율이 62%인데, 연계율이 낮은 것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인지 궁금합니다. 연계율이 낮은 원인과 연계율이 낮은 경우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고에서 2007년 10월 인건비 총 지급액이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을 저소득 가정의 지원 확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이 아이돌보미 사업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용비용이 낮아진 시점이었기에 저소득 가정의 이용이 증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센터에서 별도의 사업 홍보나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을 집중 발굴하는 등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성남시 아이돌보미 사례를 통해 아이돌보미사업을 진중히 고찰해 보고,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